

# 주요 인터뷰

## “시대가 달라졌으니 법당부처 안방에 모셔야죠”

### 태응스님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대담: 최정희 편집국장

— 안녕하십니까. 스님의 조용한 이미지와는 달리 요즘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기색없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스님의 특징이고 장점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에 취임하신 후 대규모 회사를 차근차근 구성해 나가면서 내년 3월 1일 개국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신 스님의 저력에 교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 부처님의 실력

▲ 이게 어디 내 힘입니까. 부처님 실력이요 가피지요. 나는 그저 원력만 갖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구성원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에 주시는 교계 불자들의 불심에 힘입어 열심히 심부를 할뿐입니다.

— 스님, 법가에는 산중에서 기도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최첨단 대작불사를 맡게 되셨습니까.

▲ 잘 보셨습니다. 보신대로 산중승려입니다. 그러나 전법은 수행승의 의무이며 사명이고, 시대에 따라 포교방법도 달라져야 하므로 새로운 포교에 나선 것 뿐입니다. TV 화면을 포교당이라고 생각할때, 돈이 아무리 들고 어려워도 최첨단 포교당을 짓는데 한할수 없죠.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사장을 맡게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조계·천태·진각종승 3대 종단이 함께 출자기도 하면서 공동 대표이사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조계종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통도사가 15억원을 출자하고 다른 교구 본사에서 힘을 모아 37억9천7백만원의 납입 자본금으로 3월 9일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단에 문제가 생겨 4월 2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오늘 (10월31일) 불교텔레비전 부처님안방 마지막날이라 회사로 찾아오는 불자들이 줄을 잇고 있고, 또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불자들이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동참의식과 불심이 있는한 한국불교의 내일은 밝다고 봅니다. 이 불심이 바로 불교TV영상을 통해 전법의 꽃으로 피어날테니까요.

— 지난 9월 10일부터 불자주식공모를 시작하셨는데 50일간의 법정기간동안에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일에서까지 청약이 들어왔습니까.

1억원의 청약하신 대주주도 2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동참에 있어서는 대주주나 소주주나 그 성원의 뜻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 불자가 주인이 되는 TV방송사가 될 때 영상포교는 그 만큼 기반을 튼튼히 할테니까요.

— 이번의 공모주를 포함한 총자

본금은 얼마나 되며, 불교텔레비전이 차질없이 운영될려면 자본금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 37억9천7백만원을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후 지난 7월 제1차 자본금으로 22억원을 증자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식공모금 약 70억원을 포함하면 약 13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사가 원활하게 운영될려면 200억원이 확보돼야 할것으로 봅니다. 개국후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영상포교사 채널 32

— 불자들이 주식청약을 하면서 상장·비상장 주식을 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불사에 동참하는 뜻이 컸을텐데, 그래도 회사임상에서는 기업공개때까지 주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포교당 세우는 마음으로 말아... 성원에 감사

됩니다.

▲ 청약신청서 접수는 10월31일 마감이지만 주금 납입기일이 11월 11일까지이므로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45억원 정도로 봅니다. 아직 부산지역 후원회에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모두 마무리 되면 70억원은 무난히 조성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 밝은불교·생활불교

— 금액도 중요하지만 동참인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텔레비전에 불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답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 1만5천여명이 45억원을 청약했고 부산신도까지 포함하면 2만5천명에서 3만명이 이번 주식공모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며칠후면 정확한 집계는 나올 것입니다. 통도사 미주본원인 타코마의 서미사와 독

**“유식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정보 홍수 시대이므로 정서적 정감에 호소하는 영상을 매일 2회씩 방영합니다. 관세음의 32응신을 상징한 불교채널 32를 쉬는 마음으로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방송의 지향점입니다.”**

▲ 혹자일때는 공개 이전에도 이막대당을 합니다. 뿐 아니라 방송행 사잡어, 문화센터 수강특전, 국내의 성지순례 참여 우선권, 영상물·도서 열거 제공, 관광료 징수사할 무료입장등의 특전을 마련, 불교가족으로 대우합니다.

— 아직도 불교텔레비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불자들이 많은 줄 압니까.

▲ 불교텔레비전은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로서 첨단과학 시대를 주도해 나갈 뉴미디어이지요. 예불을 비롯한 제반의식과 콘서트, 설법, 교리강좌, 경전해설, 명상·해외성지순례, 찬불가, 어린이 만화등 부처님가르침을 가정에서 TV화면을 통해 폭넓게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텔레비전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개발음의 길을 영상으로 펼쳐보일 포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TV는 기존의 KBS, MBC 등 공

중과 방송과 달리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인 개국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4월25일 지금의 이태원본부장, 총사성제작국장, 이호경경영리극장을 추진위원으로 내정하고 다보빌딩 2층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6월 23일 현재의 자리(금호전기빌딩)로 이전한후 제1스튜디오 공사 및 각종 장비를 발주, 오는 12월초부터는 스튜디오제작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인력도 경력·신입포함 80여명이 개국을 향해 달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백명선으로 식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불교

텔레비전의 특징을 어떻게 살리실 계획이신지요.

#### 동진 출가한 '기도스님'

▲ 제작방식에 관한 건인데 내가 들기로는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불교, 그리고 합어나 불교에서 탈피한 미래 지향적인 밝은 불교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예쁜아이와 베타이맨 신사의 합작, 아이들과 함께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스님등을 영상화하겠다는 거요. 그림이상의 확실한 포교가 없다는 지분을 들었습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음악과 영상만 흐르는 '영상 날바나'같은 작품을 하루 2회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식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정보 홍수시대에 실성을 계발할 수 있는 정서적 정감에 호소하는 제작의도입니다. 즉 관음보살의 32응신을 상징한 불교채널 32를 보면 편한 마음으로 쉬어 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우리방송의 지향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 말로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다고 제작진들은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 교계에서는 동진출가하신 스님을 「기도스님」이라고 하면서, 매사를 원만하게 어떤 고민도 풀어나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도는 수행승의 당연한 일상이고, 수행인답게 살려면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일을 매달려서 풀어가자는 것이 제 생활 신조입니다.

— 통도사 주지직과 해동고교·

자비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등을 맡고 있으며, 지역 유치원·영아원도 운영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지 않으신지요.

— 앞에서 거들어 주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리틀 붓다」를 감상하실 정도로 영어실력이 수준급이고 뛰어난 서화솜씨에 차를 즐기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 오직 불교텔레비전 발전이 곧 한국불교발전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진하면서 잠시 쉴때 필요한 여기 일흔 화제상을 정도는 아닙니다.

— 불교텔레비전 로고가 말해주듯 부처님의 금빛 진리가 온누리에 고루 퍼질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명서

지난 10월26일 국보2호인 원각사지 10층탑과 대원각 사적비가 정부당국의 무성의와 방치로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보도에 깊은 충격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문화재의 훼손은 비단 원각사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 감은사지 석탑, 경주 노천 불상, 석굴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럴때마다 본 종단은 단지 이교도의 소행에 기인한 문제로 치부하고 정부당국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각사지의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관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음을 볼 때 과연 현정부가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 사적도 아닌 국보를 이렇게까지 훼손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이땅의 불교 문화재를 암묵적으로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경부고속철도가 경주지역의 많은 문화재가 있는 곳을 경유하게 되어 손실지경에 처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비통함과 함께 깊은 우려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중언할 필요없이 너무나 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당하면 더 이상 원상태로 복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 이를 보전하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후세들에게 길이 물려주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전하여 후세에 고이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이의 훼손을 방지하고 묵인하여 역사적 유물을 상실케 함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전 불교도는 이번의 사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계의 총의를 모아 대책을 수립하는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는 국보 및 보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불교계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종단은 성보를 종합관리하고 그 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전문 부서인 '사회문화부'를 배치(종현에 명시)하여 내달 출범하는 새 종단 집행부에서 출범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도 및 불자들은 이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여론 작업을 조성할 것이며 그에 앞서 정보관리에 문제가 있는 현 정부에 먼저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불기 2538년 11월 1일

##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장 탄성 합장